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December 13 2024 Vol. 941

"교회는 사교 모임, 청소년 목회자는 육아 도우미 돼"

닉 부이치치(Nick Vujicic·42)가 서구교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며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국제 비영리단체 '닉브이 미니스트리'(NickV Ministries)를 이끌고 있는 닉 부이치치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서구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기보다 '컨트리클럽이나 사교 모임'과 더 비슷해졌다"고 안타까워하며 "중독과 자살 충동이 증가하는 시대 속에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닉 부이치치는 "우리는 다음세대를 제자로 양성하지 않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결과를 보고 있다. 미국교회를 잘 살펴 보면 청소년 담당 목사들은 '육아 도우미'로 여겨진다. 제가 가본 교회의 95%는 컨트리클럽이나 사교 모임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많은 교회가 젊은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복음에 물을 타고, 조금 더 많은 오락과 재미, 상호 작용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양식을 '단단한 식물'에서 '젖'으로 바꾸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Z세대는 욕설을 사용하고 난잡한 성관계를 하며,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실제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임감 없이,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 않은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IT 중독부터 성적 착취, 낙태와 그 여파 등 Z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오늘날 많은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며, '17세가 되기 전에 강간을 당했다'고 밝힌 어린이의 수가 많다. 미국에서 진행된 2,500만 건의 낙태 중 많은 수가 교회에 다니는 여성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낙태와 함께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경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매우 두렵다"고 했다.

부이치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회개, 책임, 연합"을 강조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보호를 잃을 위험이 있다.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상을 뒤집고, 상인들을 내어쫓고, 교회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국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결국 하늘의 비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가 큰 망치로 깨뜨려지는 역사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거의 콘크리트로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남가주교협 55대 회장단 출범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개혁"

교회 연합과 지역사회와 동행
다음 세대 양성과 리더십 개발
건전한 신학과 신앙 수호



남가주교회협의회 제55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8일 오후 4시, 나성영락교회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기독일보

남가주 교회협의회 제55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8일(주일) 오후 4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교계 인사 약 1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행사는 약 3시간 동안 1부 예배와 2부 이취임식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새롭게 취임한 신임회장 샘신 목사는 "우리의 비전은 남가주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지역사회의 희망과 섬김의 등불이 되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회 연합과 지역사회와의 동행, 다음 세대 양성과 리더십 개발,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수호한다는 목표 아내, 연례 한인 교회 축제와 차세대 리더십 서밋을 통해 교회 간 연합과 지역사회 섬김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교협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 모든 사역은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힘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협을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임사에서 교협 54대 회장 최영봉 목사는 "이번 회기 부회장의 50% 이상이 1.5세이자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교협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며 "교협은 앞으로 미래 100년, 1000년을 내다보며 명실상부한 남가주 교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 받는 교협이 되도록 기도하며 응원한다"고 밝혔다.

축사 및 권면을 한 목회자 및 지역사회 리더들은 "지금의 미국 교회는 동성애와 자유주의 신학 등으로 혼돈 가운데 있어, 순수한 복음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솔라 피데(오직 복음), 솔라 그라시아(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오직 성경)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 모습을 복음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며 "남가주 교협이 연합기관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기도한다. 그리하여 더욱 큰 복음의 울타리를 만들고 여러 세대와 지역, 다양한 단체와 연합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신임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변화를 통한 축복"(창세기 32:24-31)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최영봉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끈기이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야곱의 끈질김이 필요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있는 자들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있는 자들로부터 이뤄진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25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 2025년 1월 31일 까지
교육 인가기관
ats tracs BPPE
학 사 Bachelor of Arts
· 신 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 사 Master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 사 Doctoral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n ICS
· 교육학철학 PhD in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in CP
입학절차
1. 원서접수
www.gm.edu에서 Apply메뉴 클릭
2. 서류 제출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서류 제출
3. 인터뷰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터뷰 진행
4. 입학등록
최종 합격자 등록
유학생 I-20 발행
선교사, 목회자 및 가족 장학금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융자 (FSA)
통신(Online)수업으로 학위 취득 가능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GMU 홈페이지 [Apply 바로가기]
입학문의 | 입학처 (714) 525-0088 (ext 101) admissions@gm.edu www.gm.edu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라크마, 음악으로 하나되는 성탄 선물 선사

크리스마스 가족의 밤 콘서트, 한길교회서 장학생과 함께해



크리스마스 가족의 밤 콘서트가 라크마 주최로 지난 8일(주일) 저녁 7시 한길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기독일보

라크마(LAKMA, 단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에서, 성탄을 앞두고 가족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시간을 선물했다.

크리스마스 가족의 밤 콘서트가 라크마 주최로 지난 8일(주일) 저녁 7시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최승호 단장은 이번 콘서트에 LAKMA 장학금 수상자들이 함께 한다며 이들을 소개했다.

특히, 일등 수상자 피아니스트 정유라에 대해,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질병을 앓으면서도 신앙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결과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권위 있는 상을 수 차례 수상했다"며 그녀의 성공 뒤에는 "한국의 외딴섬에서 그녀를 지원해 준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첫 무대는 에스더 김 부지휘자가 이끄는 가운데, 라크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코랄과 테너 오정록과 소프라노 니콜 밴슨이 출연하여 크리스마스 페스티발(Leroy Anderson 곡), 'Mille cherubini in coro'(Franz Schubert 곡), '오 거룩한 밤'(Adolphe Adam 곡)을 선보였다.

이어서 무대에 오른 마에스트로 윤임상 교수가 모차르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영광(Gloria)'을 지휘했고, 소프라노 김혜준, 김시연, 양유진, 테너 오위영이 출연했다.

학생 지휘자 양성진, 박보미의 지휘 아래, 장학생들의 공연으로 채워진 두 번째 무대는 12월 가족이 함께하는 성탄 콘서트를 다양한 오페라곡들로 장식했다.

공연 후 장학금을 전달식이 있었다. 장학금은 피아니스트 장유라, 소프라노 정에린(카네기멜론 대학 재학, 상금 2천 달러), 3등 소프라노 김시연(아이오와 대학, 상금 1천 달러)에게 돌아갔다.

김민선 기자



북미한인 나사렛 남서부지방회가 9일 저녁 아름다운교회(이봉하 담임목사)에서 크리스마스 뱅퀫을 개최했다. ⓒ기독일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나누는 성탄절 되길"

북미한인나사렛 남서부지방회 크리스마스 뱅퀫 열려

북미한인 나사렛 남서부지방회(이하 지방회)가 지난 9일 저녁 아름다운교회(이봉하 담임목사)에서 크리스마스 뱅퀫을 갖고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나눴다.

이날 뱅퀫에는 지방회목회자와 가족을 비롯한 60여명의 목회자들이 함께해 예배와 친교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강정원 목사(지방회 회계)의 시작기도 후에 이원규 목사(미주한인 나사렛 총회장)가 찬양하고 이봉하 목사(지방회 증경회장)가 대표기도한 후, 진건호 목사(지방회 회장)가 이사야 9장 2절을 본문으로 "희망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진 목사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둔 세상 가운데 예수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실 것을 예언했고 그리스도는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위해 오셨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의 빛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받아 변화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나누며 돌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자"고 권면했다. 황성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시간에는 김범수 목사(지방회 총무)의 사회로 지방회 교회별 장기자랑과 선물증정을 통해 훈훈한 사랑을 나누었다.

조셉 리 기자

어노인팅 교회, '영혼육이 건강한 교회' 특강

"육신의 질병은 마음의 문제에서 오고, 마음의 병은 영혼의 문제이다"



라크레센타 어노인팅교회에서 전달훈 박사를 초청해 전인치유 세미나를 열었다. ⓒ어노인팅교회

어노인팅교회(담임 신경섭 목사)가 전달훈 내과의, 장로를 초청해 '30년 내과의가 말하는 몸과 마음의 병, 전인 치유'라는 특강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실제 임상 경험에서 나오는 평소 접하지 못한 아주 깊고 좋은 내용이었다. 내용뿐 아니라 강사의 인격적인 면과 영적 편안함까지 전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달훈 박사는 그가 의사가 된 계기에 대해 "10대 당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공장 일에 청소 일이며 고생하시던 아버지는 뇌졸중이 오고,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경험"을 통해 "질병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신체를 해부하고 질병을 연구하며,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병리학을 공부하고, 이어서 면역학을 공부하며 약 200번 신체 해부하는 훈련을 거쳤다. 이런 과정을 통해 또 여러 환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연구하며 인체를 공격하는 각종 암 세포는 죽지 않고 경계가 없으며, 정체성을 잃고 자기 세포와의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질병은 내 몸 안의 세포가 서로 싸우면서 분열로 나누어지는 것이 만병의 시작으로, 암의 원인이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다름 아닌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점이었다."

이어서 전 박사는,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의 압력이나 위협에 대한 신체의 생리적 반응이지만 육체뿐 아니라 마음에까지 영향을 끼쳐 불안, 우울증, 조현병 등 각종 정신 장애를 유발한다며 "스트레스 관리와 회복이 전인적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안이, 첫 사람 아담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분리에서 비롯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의학을 공부하고 치료를 하면서 육체의 질병을 넘어 마음의 질병 원인에 대해 알게 된 후 신학교에서 관계심리학, 영성 관련 수업을 들으며 인간 내면 특히 불안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불안의 대표적인 원인 내지 증상으로 자기 방어나 불안정한 애착이 있다. 이 불안은 앞서 말한 스트레스의 근본적 원인이고, 한 사람의 정신은 물론이고 신체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불안은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것에서 시작됐다."

"육신의 질병은 마음의 문제에서 오고, 마음의 병은 영혼의 문제이다. 육신과 마음의 건강을 넘어 영혼육 전인적인 건강을 이루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이었다.

그는 "내과의로서 육신의 질병을 일차적으로 다루지만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드린다"고 간증했다.

김민선 기자



감사와 응답의 2024년 기도로 마무리



남가주 중보 기도팀 연합 기도회,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를 주제로 개최

12월 4일 오전 10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대예배실에서 120여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기도회를 진행했다. 남가주중보기도팀연합기도회(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가 한 해 동안 많은 기도제목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번 기도회 참가자들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하나님께서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다.

1부 예배는 전영숙 전도사(감사한인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고, 죠이 킴 선교사(CMF)가 기도를 맡았다. OC 교협 회장인 이창남 목사는 느헤미야 1장 12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2부 강태광 목사(중보기도운동 사무총장)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에서는 간증과 기도가 이어졌다. 박성규 목사(주님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간증했고, 안현숙 목사(청교도 화요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 밤 7시에 줌으로 모이는 화요 기도회의 기도활동을 간증했고, 유수연 교육위원장은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변화되었다고 간증했고 김철민 장로는 CMF 기도활동을 간증했다.

기도자들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신임 내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무릎 꿇기를 간구했다. 또한 미국 교회가 각성하여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기도했다. 한국을 위한 기도회는 신용환 목사(주님세운교회)의 인도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조국의 혼란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했다.

주최 측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남가주중보기도팀연합기도회는 2025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윤준 기자



12월 4일 오전 10시, 감사한인교회 대예배실에서 중보 기도자 120명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기도회를 가졌다. ©남가주 중보 기도팀



남가주 중보 기도팀 연합 기도회 이후 단체사진. ©남가주 중보 기도팀

미주 청소년 위한 유스 하이어 콜링

12/25-28(수-토) 포모나 Sheraton Fairplex Hotel

매년 12월 청소년을 위해 개최되는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가 오는 12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포모나 소재 Sheraton Fairplex Hotel에서 개최된다.

이번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순 무브먼트 글로벌(SOON Movement Global) 대표 오윤태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땅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지도자로 이들을 준비시키며, 십대를 풍성하게 살아내게 하기 위해" 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며, 컨퍼런스의 주제를 요한복음 10:10절의 'to the fullest'(풍성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사로는 오윤태 목사, 샘신 목사(샘커뮤니티교회), 김우준 목사(토랜스 조은교회), 다니엘 A. 엘리엇(Daniel A. Eliot, Great Commission Church International EM) 목사가 참여한다.

참가비는 등록 시기에 따라 300달러에서 400달러이며 참가대상은 중고등학생(6학년~12학년)이다. 등록은 https://youthhigher-calling.org에서 할 수 있다.

조셉 리 기자

➔ 1면 기사 〈남가주 교협...〉에 이어서 1부 예배에서는 인도에 샘신 목사, 기도에 김은목 목사(55대 수석부회장), 성경봉독에 김창영 목사(55대 부회장), 설교, 헌금기도에 권영신 장로(55대 부회장), 광고에 최영하 목사(54대 총무) 축도에 한기형 목사(31대 증경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2부 이취임식에서는 사회에 이성우 목사, 기도에 박은성 목사(55대 부회장), 신임 회장 취임선서, 협회기 이양식, 권면 및 축사, 축하 공연 등이 있었으며 최학량 목사(34대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정해진 목사(33대 증경회장)와 신원규 목사(OC교협 증경회장)가 권면사를 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서면으로), 지용덕 목사(40대 증경회장), 김향로 장로(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 민종기 목사(41대 증경회장), 서경원 장로(남가주 장로협 회장), 데이빗 민 당선인(연방 하원의원), 최순길 목사(47대 증경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축하공연에는 KCBC 합창단, 빅토리아리의 국악, 화랑 청소년 팀의 난타공연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비전이 강조되었으며, 다양한 세대가 연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함께 이루자는 다짐이 빛났다는 평이다.



남가주밀알, 대통령 봉사상 시상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교실에서 봉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12월 7일(토) '새영교회(담임 정종섭 목사)'에서 가졌다.

사랑의교실(Class AGAPE)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수업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현재 OC, LA, 동부 LA, Irvine, Torrance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교실이 열리고 있고, Santa Fe Springs에 위치한 남가주밀알 사무실에서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교실이 매주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금상 8명, 은상 6명, 동상 10명 등 총 24명의 학생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봉사상이 수여되었다. 기사 및 사진 제공 | 남가주밀알 홍보부



이용규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Faith Theological Seminary
종교교육학 박사



60여년 목회, 2016년 소천
(LA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 시무)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성탄절 설교"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제 38권에서 발췌

본문(Scripture) 누가복음(Luke) 2:1-7

제목(Topic) 성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God's Preparation for the Birth of Christ)

강해설교집 목록

제1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2권 아가서 강해
제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제5권 썩지 않는 면류관
제6권 스가랴서 강해설교
제7권 위기를 이기는 길
제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제9권 룻기서 강해
제10권 새 천년에 할 일
제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제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제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제15권 하늘의 시민권
제16권 진정한 평화
제17권 하나님의 약속
제18권 십자가의 도
제19권 새벽을 깨우라
제20권 인간의 복된 사명
제21권 인생의 바른 길
제22권 승리의 신앙생활
제23권 선한 목자와 양
제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제25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제26권 빌립보서 강해
제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제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제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제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제31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제32권 간추린 신학
제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제34권 위대한 사랑
제35권 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
제36권 큰 산아 평지가 되라
제37권 경건한 신앙생활
제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제39권 그리스도의 승리
제40권 갑절의 영감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제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탄 준비]
[God's Preparation for Christmas]

(1) 민족을 준비하심 (Prepares the nation) 1-3
(유대인의 특징)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Jew)
(A) 만민 중에 미천함 (Lowly amongst the nations) 신(Dt) 7:6,7
(B) 많은 연단을 받음 (Received much training) 사(Isa) 43:1,2

(2) 인물을 준비하심 (Prepares the person) 4-5
(마리아의 특징) (Special characteristic of Mary)
(A) 정결을 지킨 처녀 (Kept her purity) 사(Isa) 7:14
(B) 주의 뜻에 순종함 (Obeyed the Lord's will) 눅(Lk) 1:35,38

(3) 장소를 준비하심 (Prepares the location)
(예수께서 나신 곳) (Place of Jesus' birth) 6-7
(A) 베들레헴에 나심 (Born in Bethlehem) 미(Mic) 5:2
(B) 천한 구유에 나심 (Born in lowly manger) 고후(2Co) 8:9

(결론) (Conclusion)
(A) 초림을 믿고 영접하라 (Believe and receive the First Coming) 요(Jn) 1:12
(B) 재림을 깨어 바라보라 (Stay awake and long for the Second Coming) 히(Heb) 9:28

설교본문: 누가복음 2:1-7

1) 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다윗의 동네로
5)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에든지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LA 동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오]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설교집 신청
담당 :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ykleesermon@gmail.com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새겨진 남성들 일어나야”

‘맨 인 더 미러’ 한국지부 대표 이병일 목사, 남성들, 치유·회복 경험 못해 … 내면의 아픔 숨기고 가면 쓴 신앙

한국교회에서 ‘남성 사역’이라는 말은 아직 생소하다. 남성들을 위한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성들이 다수인 한국교회 상황에서 남성 사역은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목회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즉,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성도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자리에 남성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전문 사역’은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남성 사역단체 ‘맨 인 더 미러(MAN IN THE MIRROR)’의 한국지부 대표인 이병일 목사가 한국교회에 ‘남성 사역’을 본격 알리기 위해 최근 귀국했다.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간 이 목사는 그곳에서 사업을 하다 목사가 됐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에 남성 사역을 소개하고 싶다. 한 남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큰 기쁨”이라며 “경건하고 신실한 남성의 영향력은 교회는 물론, 이 세상을 바꿀만큼 크다. 한국교회가 이 사역의 중요성을 꼭 알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이 목사 스스로의 간증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며, 한때 성공하기도 했지만 실패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의 생각과 마음, 신앙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됐다고.

그에 따르면 많은 남성들이 교회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단지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 아내를 따라 마지못해 다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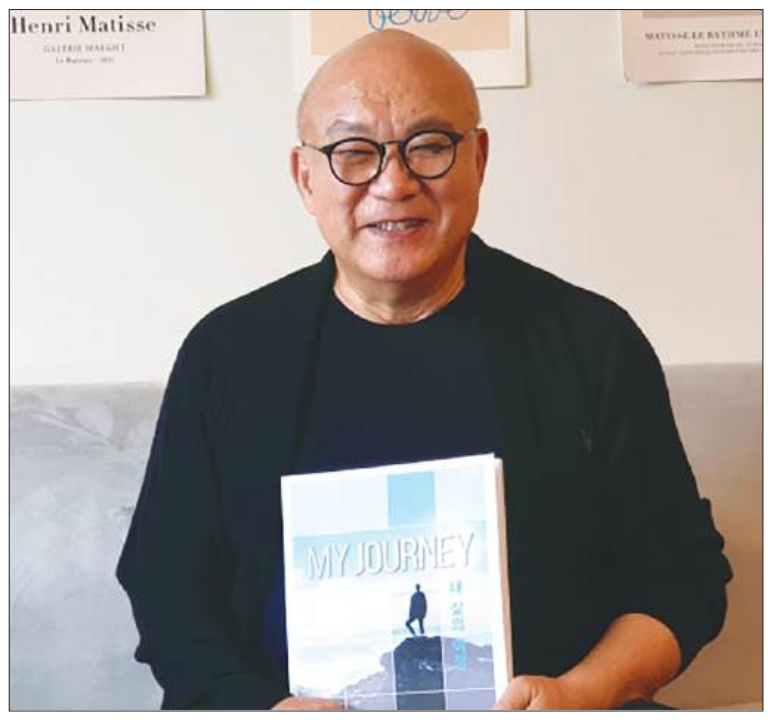
이런 문제는 비단 일반 남성 성도에게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이 목사는 말한다. 많은 경우 목사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 이 목사는 “그렇게 되면, 목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빠지기 쉽다”며 “실제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했다.

‘남성 사역’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목사는 “남성 사역은 남성들을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그룹을 통해 성경의 말씀과 예수의 이야기가 그들 안에 지속적으로 심겨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성 사역에선 지속성 중요… 소그룹이 적합

이처럼 이 목사는 남성 사역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그것이 참여하는 남성들 사이의 깊은 교제와 지속적 훈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소그룹 중심의 ‘남성 사역’은, ‘아버지학교’와 같은 일회성 사역과는 구분된다는 게 이 목사의 말이다.

“한국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란노아버지학교는 남성들로 하여금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고, 이를 통해 치유와 회복,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서 남성들을 일으켜 세운, 매우 좋은 사역입니다. 그러나 5~6번 정도 만남의 일회성 행사이기에 남성들을 근본적으로 예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소그룹 중심의 남성 사역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MY JOURNEY-내 삶의 여정’을 번역해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이병일 목사 ⓒ기독일보

이 목사는 남성들이 소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직접 번역했다. ‘MY JOURNEY-내 삶의 여정’이라는 책으로 ‘맨 인 더 미러’의 창립자인 패트릭 몰리(Patrick Morley) 목사가 집필한 교재다. 몰리 목사의 저서 「The Man in the Mirror」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서적 100권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교재는 ‘남자와 성경’ ‘남자와 기도’ ‘남자와 예배’ 등 남성들의 신앙 관련 주제들을 비롯해 결혼과 자녀, 친구와의 우정 등 일상의 문제들도 다루고 있으며, 두려움과 분노, 정욕과 돈 등 매우 실제적인 이슈들을 정리함으로써 남성들이 정직하게 스스로를 대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교제는 1권에서 3권까지 총 3권으로 구성돼 있다. 한 권의 사용 기간이 1년이어서 총 3년간 이 교재를 활용해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소그룹의 리더는 이 교재를 따라 약 1시간 40분 정도의 시간에서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다.

그는 “소그룹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그러자면 리더가 먼저 가면을 벗고 솔직해져야 한다”며 “결국 남성들이 보고싶어하는 건 리더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다. 그 은혜를 발견할 때 남성들의 회복은 시작된다”고 했다.

훈련 없이 남성들 세워선 안 돼 소그룹 ‘남성 사역’으로 일꾼 양육

이 목사는 이러한 소그룹 사역은 남성들을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키워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러한 훈련 과정 없이, 그저 몇 번의 행사나 집회에서 은혜를 체험한 남성들을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게 이 목사의 문제의식이다. 그렇게 제대로 된 훈련 없이 세워진 남성들은 이내 무거운 사역의 짐에 지쳐 침륜에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소그룹을 통해 훈련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새겨졌을 때 비로소 남성들은 사역자로서 준비를 마치게 된다”며 “물론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한 번 세워진 남성 사역자는 그 누구보다 변치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굳건하게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 사역… 한국 교회를 결정하는 뜨거운 감자

한편, 이 목사에 따르면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는 “남성 사역의 부흥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뜨거운 감자”라며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아무도 그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이 목사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남성 소그룹 사역과 이를 위한 교재를 소개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사역할 방침이다. 남성 사역과 소그룹 교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병일 목사(010 8421 6090)에게 하면 된다. 김진영 기자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경찰국에 사랑 나눔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가 지난 12월 6일(금)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에 방문하여 경관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교회 측은 연말을 맞이하여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역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한편, 이 교회는 12(목) 오전 10시에 싱글맘 사역단체인 무지개 가족 선교회를 방문해 싱글맘들을 위로했으며 26(목) 오전 10시에는 양로병원 및 양로호텔 방문을 방문할 예정이다. 12월 22일(주일) 오후 5시에는 2024년 ‘영혼의 초대’의 네번째 순서로 ‘성탄으로의 초대’를 개최한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Center
MEDICAL CLINIC

내과전문의 임유일의

무료 어르신을 위한 무료건강상담



만 65세 이상 시니어 온리!
11월 – 12월 무료 봉사 이벤트!

연말맞이 어르신들께 드리는 따뜻한 선물!
1회차 30분의 무료 진료 받으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센터메디컬클리닉 2호점 주치의
내과전문의 / 임유일 D.O



노인성질환 당뇨 / 고혈압 / 뇌졸증
치매 / 식도염등



통증질환 허리 / 턱 / 무릎
연골 / 관절염등



만성질환 우울증 / 심부전 / 난청
호흡기 질환등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월요일-금요일 | 8:30am – 5:30pm
(714) 583-8569

12372 Garden Grove Blvd, #B
Garden Grove, CA 92843

*무료상담절차상 약처방과 리퍼럴은 어렵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성경적 · 신학적 성찰과 선교 방향 제시

FIM국제선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예배 및 이슬람 세미나 개최

이슬람권 전문 선교단체인 FIM국제선교회(이사장 천환 목사, 대표 유해석 선교사)가 올해 창립 28주년을 맞아 9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예배'와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 및 신임 이사 위촉은 FIM국제선교회 이사 노태진 목사(영동제일교회 원로)의 인도로 이사 임동현 목사(아델포이교회 담임)의 기도 후 이사 김성봉 목사(오손도손교회 담임)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갈 4:3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라며 "먼저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는 비록 자유하지만, 사랑 때문에 종노릇 하며 살아야 한다. 이 복된 소식을 모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과 모든 아랍인에게 전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경석 교수(총신대, 반주 한현주 선교사)가 봉헌 특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김성봉 목사의 봉헌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FIM국제선교회 이사장 천환 목사(고신 증경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직전 회장)는 이날 초청인 대표 인사에서 "우리 FIM은 희망이 있고 젊다"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는 분들이 더 같이 모이고, 좀 더 전심으로 FIM 사역을 하기 원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절벽 시대에 이민정책으로 수많은 이슬람이 몰려오는 것을 우려하며 "이 땅을 지켜낼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한층 더 강하게 FIM의 사역에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신임 이사 위촉 시간은 이진우 총무의 진행으로, 천환 이사장이 신임 이사 18명을 대표하여 김만철 목사(여주 한우리교회)에 위촉패를 전달했다. 또 대표 유해석 교수의 광고와 책 선물에 이어 필리핀 이요셉 선교사, 요르단 장명환 선교사, 인도 정우진 선교사와 김해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는 이동규 선교사가 선교보고를 했다.

2부 세미나는 유광철 박사(안산제자교회 담임)가 '새 언약 안에서의 이슬람 선교 - 아브라함의 가정을 중심으로', 김요한 선교사(명지대학교 대학원)가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창세기 21장 11절 - 그의 아들에 대한 선교적 해석', 유해석 대표(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전공주임 교수)가 '이슬람에 대한 중세 기독교 신학자들의 이해 - 다메섹 요한에서 쿠사의 니콜라스까지'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FIM국제선교회

◇유광철 박사 "이슬람 선교, 은혜 언약 안에서 새 언약으로 접근해야"

유광철 박사는 이날 "아브라함 가정의 역기능적 가족관계는 이슬람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무슬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의 패러다임이 아닌, 상호영향(관계)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체계론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결국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과제는 '언약'으로, 이는 가족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며, 이스마엘과 관련된 모든 관계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또 "이스마엘을 통해 주어진 특별한 언약(창 16:10~14, 21:18 등)을 가진 무슬림들은 이삭을 통해 '은혜 언약'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총과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육 간의 약속과 축복을 합법적으로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될 것"이라며 "새 언약 안에서의 무슬림 선교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요한 선교사 "이스마엘, '사라의 관점' 아닌 '하나님의 관점' 에서 봐야"

김요한 선교사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이슬람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 또 이스마엘을 대하는 성경 속의 관점을 '사라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개하면서, 사라의 관점이 기독교의 관점으로 동일시된 오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과 축복을 소개했다.

김 선교사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11절에서 근심한 아들은 이스마엘"이라며 '이스마엘'이 지닌 함의 속에서 발견한 두 가지 선교적 적용점을 소개했다. 김 선교사는 "첫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의 영역에 놓여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기독교인들이 성경과 종교들의 전통을 인식하고 이스마엘에 대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존중의 마음을 갖는다면, 스스로를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인식하거나 이스마엘에게 큰 존경심을 품는 무슬림들에게 친근한 동질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선교사는 "둘째, 이스마엘은 무함마드의 직계 조상이자 메카 카바 신전의 건축자로서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이슬람교의 정체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성경과 꾸란에서 이스마엘 서사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며, 이는 추후 성경변질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변증적 목적 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해석 대표 "중세 신학자들 통해 이슬람과의 관계 형성 교훈 얻어"

유해석 대표는 "중세 신학자들은 단순히 이슬람을 적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슬람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며 "다메섹 요한과 클뤼니 베드로의 이슬람 연구의 핵심은 '이슬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온전함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유 대표는 "그들은 외적인 기독교 제국의 회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중세 가톨릭교회과 이슬람의 왜곡된 신앙관에 정통 기독교 신앙으로 응전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며, 이로써 교회가 복음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다메섹 요한과 클뤼니 베드로의 선례는 다문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현재의 한국교회가 이슬람과의 관계를 현대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한다"며 "현대 기독교가 이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배척보다는 학문적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용적 태도가 중요하며, 이는 상호 종교적 존중과 공존을 위한 길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중세 신학자들이 이슬람을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대응한 방식은 현대 기독교가 이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학문적 자산"이라며 "이러한 이해와 교훈을 통해 현대 기독교는 신학적 관용과 평화의 길을 탐색하며, 이슬람과의 종교적 대화에 보다 개방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희 기자

손현보 목사 "나라 살리는 기도 절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지난 7일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라며 다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손 목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집회 인도로 인해 미국에 있었다. 그는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긴급히 현지 식당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사태가 발생한지 6일이 지났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뉴스를 접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목회자와 신앙 관련 채널들이 이 상황에 대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손 목사는 "한국의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이기게 될 줄로 믿는다"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는 일이 있었다. 5.18과 6.10항쟁, IMF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또 국가를 살리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손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를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하게 여겨주실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줄 줄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백선영 기자



故 김영일 집사님

LA숭실동문회 회장과 LA숭실OB합창단 단장으로 헌신하셨고,
크렌셔장로교회 성가대 대장으로 섬기셨던 김영일 집사님께서
2024년 12월10일 자택에서 6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다음과 같이 장례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천국 환송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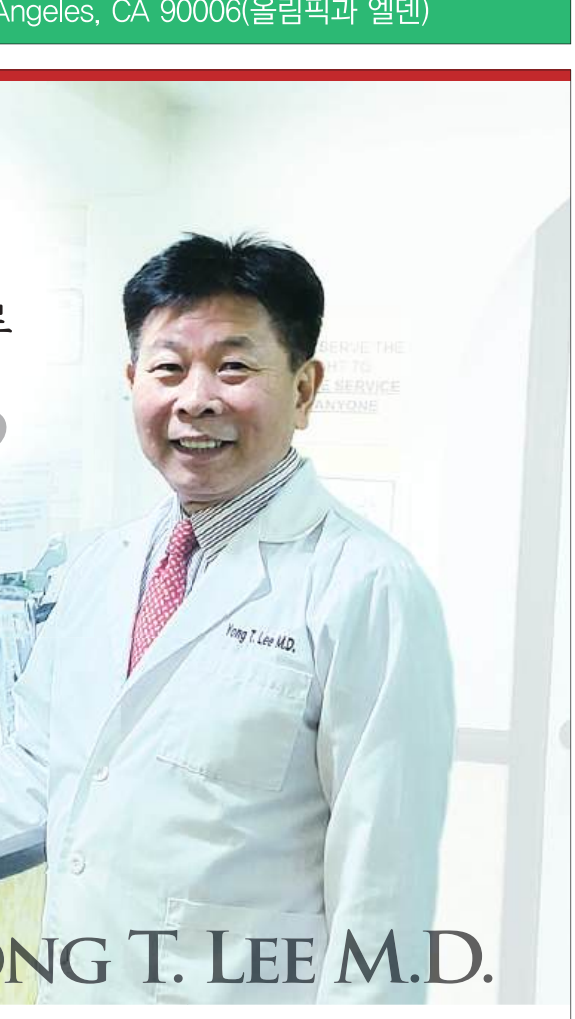
2024년 12월 21일(토) 오전 10시

장소 : 한국장의사 (2045 W. Washington Blvd, LA, CA 90018)

문의 한현종 목사 213-407-1600 김그레이스 집사 213-548-0221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축 성 탄

NKIA COLLABORATION
North Korean in America(엔키아 선교회)


Kim Young Koo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주소 및 전화
23425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웨스트힐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KM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1:00
EM 대학부 모임 주일 오후 2:00


오명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 SINCE 1975 •
귀생당

소중한 분들을 위한 따뜻한 선물

[연말연시 건강지킴이 귀생당]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은
귀한 분들을 위한 **건강지킴이** - **귀생당**

한 해 동안 귀생당을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연말연시 귀생당 건강지킴이로 소중한 분들께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전해 보세요!

Special Price



귀생당
당간신구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 기능을
강화해서 당뇨와 합병증으로 부터
해방 되십시오!

Special Price



귀생당
후코이단
강력한 면역시스템 활성화로
항종양, 항궤양, 항바이러스등
질병으로 부터 자유로워집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아이 눈 아이
피로한 눈, 노안, 녹내장,
백내장 등 각종 눈질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후코이단 드링크
후코이단 드링크 한 병당 함량을
5400mg으로 높여 인체에 더 빠르게 흡수되고
효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동의비
허준의 동의보감의 비방으로 6년근
홍삼과 녹용, 지황등 20여가지 신비의
약초가 한 알에 모두 함축되었습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홍삼100% 진생프레소
오로지 6년근 홍삼만을 진하게 담아
면역력증진, 피로회복, 당뇨개선,
동맥경화, 황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홍삼+경옥고 홍력소
6년근 홍삼에 경옥고가 더해져
면역력을 키워 떨어진 체력을 회복시키고
골다공증, 기억력을 회복해 줍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글루코사민
천연 콘드로이친의 상어연골과 지느러미로
만들어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각종 관절염에
탁월하고 위장에 부담없는 글루코사민입니다.

• SINCE 1975 •
귀생당

www.kiseidousa.com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384.3333 / 800.909.0001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튀르키예, 임신 중인 기독교 난민 여성 이란으로 추방 명령



(사진은 기사와 무관) ⓒSumeyye Yazici, public domain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튀르키예 당국이 한 기독교 난민 여성을 이란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해당 여성은 교회 활동으로 인해 체포된 후 자국을 떠나야 했으며, 현재 임신 중이자 두 살 딸을 둔 어머니로, 이란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생명의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확인됐다.

CDI에 따르면 2015년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 여성은 튀르키예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UNHCR은 2018년 9월부터 난민 신청 처리 및 등록 책임을 터키 정부에 이양한 상태다.

이 여성은 "저와 제 딸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12월 30일 이후 이란으로 강제 송환되면, 그들은 저를 죽일 것이다"라며 터키 메르신 지역에서 난민 지원 단체 필로이 글로벌에 호소했다.

추방 결정과 법적 다툼

CDI는 안전을 위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이 2010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교회 활동과 관련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체포된 뒤 2014년에 이란을 떠났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당국의 망명 신청 거절 후, 이 여성은 여섯 차례 항소했으나 법정에서 자신의 사례를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난민 지원 단체의 주드 시미온 대표가 전했다.

그는 "2024년 10월 30일, 또다시 망명 신청이 거부되면서, 이 여성은 임신 중이었고 2살 반 된 딸을 돌보고 있던 상황에서 체포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여성은 이란 내 지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으며, 이에 따라 체포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CDI는 이 여성의 첫 남편이 그녀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지역 가정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을 이유로 2014년에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미온 대표는 "그녀의 전 남편은 그녀와 가족의 기독교 활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에 이를 통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CDI는 당국 경찰이 체포 영장을 들고 해당 여성의 집에 들이닥쳐 성경, 종교 팸플릿, 기타 신앙 관련 자료를 압수했으며, 이를 위험한 '물품'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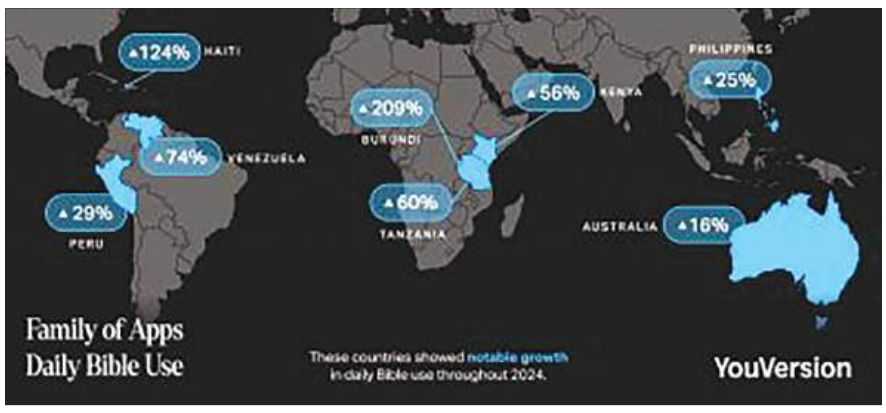
UNHCR 난민 지위 인정과 터키의 태도 변화

CDI는 해당 여성이 이란을 떠나기 전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고, 변호사는 튀르키예 UNHCR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UNHCR은 이 여성과 그녀의 새 남편, 딸을 난민으로 인정했으나, 터키 당국은 그녀의 망명 신청을 거듭 거부했다.

시미온 대표는 "튀르키예 정부는 특히 기독교인, 쿠르드족, 그리고 기타 박해받는 소수 민족 난민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민 보호 메커니즘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DI는 튀르키예가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프로토콜에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 이외 지역에서 온 난민들을 제3국으로 재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터키 내 난민 보호 수준은 여전히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승현 기자

성경 앱 유버전, 올해 일평균 이용자 약 1,400만 명



지역별 유버전 앱 사용률. ⓒ유버전

월평균 다운로드 수 약 1,120만 회… 아프리카 급성장 주목"

성경 앱 유버전(You version)이 2024년 월평균 약 1,120만 회의 다운로드 수와 일평균 약 1,400만 명의 사용자 수를 기록했다. 이 주목할 만한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커졌음을 보여 준다.

'더 바이블 리캡'(The Bible Recap) 제작자이자 유버전 바이블 플랜(YouVersion Bible Plan) 담당자인 타라-레이 코블(Tara-Leigh Cobble)은 "더 바이블 리캡 공동체는 유버전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모든 대륙으로 확장돼, 세계에서 가장 닿기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유버전은 2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버전 역시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일 사용량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아프리카(54%)와 동부아프리카(56%)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륙 전체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매일 성경을 읽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 남수단(82%), 앙골라(68%), 모잠비크(55%), 기니(50%), 나이지리아(35%), 알제리(35%)와 같은 국가에서는 올해 성경을 읽는 비율이 매일 증가했다. 아프리카는 또 어린이를 위한 성경 앱의 일일 사용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코트디부아르(32%), 세네갈(31%), 나이지리아(23%)에서 올해 아프리카 어린이의 참여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유버전은 지난 몇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 더 많은 파트너십과 지역별 콘텐츠를 추가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성경에 꾸준히 참여하는 저력을 보였다. 올해는 니카라과(107%), 베네수엘라(74%), 볼리비아(52%), 온두라스(50%), 쿠바(45%), 아르헨티나(30%) 등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많은 국가에서 일상적 성경 사용이 다시 급증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유버전은 현재 스페인어 사용 커뮤니티를 위한 성경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멕시코시티에 지역 허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초에는 매일 성경 앱을 사용하는 약 100만 명의 브라질인을 지원하기 위해 브라질 벨로 오리존치에 최초의 지역 허브를 시작했다. 유버전 지역 허브의 목표는 "지역 팀이 파트너와 교회를 모집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잘 연결되도록 돕는, 더욱 진정성 있고 지역적으로 관련성 있는 성경적 경험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S사랑하는
M마음으로
G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메디케어 가입 시 메디칼그룹은 **서울메디칼그룹**으로 선택해주세요

2024년 메디케어 보험가입 및 변경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65세 이상의 시니어세요?
메디케어 HMO 부가혜택이 많은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을 경우
보험사별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메디케어 가입 시 3가지 선택
보험회사, 메디칼그룹, 주치의 3가지를 선택하세요.
주치의가 서울메디칼그룹 소속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주치의가 있으시다면?
주치의의 의료보험 및 서울메디칼그룹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보험 에이전트나 서울메디칼그룹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가까운 전문 보험에이전트 또는 서울메디칼그룹 고객 센터 **866.760.3441**로 문의하세요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4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PCUSA 교인 수 약 109만… 2009년 대비 반토막



▲과거 PCUSA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의 모습. ⓒPCUSA 페이스북 제공

미국장로교(이하 PCUSA) 교인 수가 2009년보다 100만 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CUSA가 3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 연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교인 수는 약 109만 4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14만 명과 비교해 약 46,000명 줄어든 것이다.

PCUSA 회원 교회 수는 2022년 8,705개에서 2023년 8,572개로 133개 줄었다. 2009년 PCUSA는 현재의 2배에 가까운 약 207만 명의 교인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당시 회원 교회 수는 10,657개였다.

PCUSA의 임시 통합기관 총회의 집행 이사이자 서기인 오지현 목사는 성명에서 "숫자의 감소를 보고 희망을 잃기 쉽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확실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교단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오 목사는 "그러나 모든 신앙 공동체의 유형과 규모에 걸쳐 통계에 나타난 중요한 사역과 충실한 제자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했다.

PCUSA에서 가장 수가 많은 연령대는 71세 이상으로, 전체의 33.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7세 이하는 3.99%였다. PCUSA의 남성 교인 수는 2022년 약 348,000명에서 2023년 약 365,000명으로 증가했다. '넌바이너리/젠더퀴어'로 식별되는 교인은 2022년 1,317명에서 2023년 1,547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미국 내 대부분의 다른 종교단체들과 마찬가지로 PCUSA는 지난 수년 동안 활동 교인 수가 상당히 감소했다. 회원 교회 수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쇠퇴의 한 요인은 교단의 전반적인 진보적 신학적 방향, 특히 동성애와 동성결혼 수용과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 PCUSA가 2010년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했을 때, 수백 교회가 그에 반발해 교단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PCUSA는 교단의 쇠퇴에 대응해 직원을 감축하고 기관과 사역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혜진 기자

美 올해 성경 판매량, 작년 동기 대비 22% 급증



ⓒPixabay

미국 도서 추적 사이트 서카나북스캔(Circana BookScan)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미국 전체 인쇄 도서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1% 미만 증가한 반면 성경 판매는 22% 급증했다.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성경 판매량은 2023년 한 해 동안 1,420만 권, 올해 첫 10개월 동안에는 1,370만 권에 달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출판사들은 불안감 증가, 희망에 대한 추구, 집중적인 마케팅과 디자인 등이 '좋은 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복음주의기독교출판사협회 제프 크로스비(Jeff Crosby) 회장은 "사람들은 스스로 불안을 경험하거나 자녀와 손주를 걱정한다. 그것은 인공지능(AI) 및 선거 주기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성경 디자인 관련 웹사이트인 렉티오(Lectio.org)의 창립자인 J. 마크 버트랜드(J. Mark Bertrand)는 성경의 틈새시장 마케팅을 언급하며 "성경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성경공부에 대한 모든 변덕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틴데일하우스출판사(Tyndale House Publishers)의 에이미 심슨(Amy Simpson)은 "Z세대와 대학생들 사이에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더욱 견고한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하는 세대가 있다"고 했다.

뉴요커(The New Yorker)에 따르면, 미국의 세속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매년 올해의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2013년 바나그룹의 조사 결과 미국인의 10명 중 9명, 즉 88%가 성경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미국인의 비율은 92%였다.

미국의 성경 소유자들은 평균적으로 집에 3.5권, 약 24%는 6권 이상의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리조나크리스천대학교 문화연구센터 연구책임자인 조지 바나(George Barna) 박사는 2022년 '미국세계관목록'(American Worldview Inventory) 보고서에서 "미국교회에서도 성경적 기독교를 고수하는 경향이 약화되면서,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영적 곤경에 처하게 됐다. '비극적인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바나 박사는 "교회는 이 문제를 대체로 무시했다. 아이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말이나 행동을 통해 모순되는 가르침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모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삶의 철학으로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성경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삶의 원칙이 확인되고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삶을 바꾸는 진리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애리조나크리스천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약 1억 7,600만 명의 미국 성인 중 단지 6%, 즉 1,500만 명만이 실제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진 기자

LPGA, 트랜스젠더 남성의 대회 참가 제한



ⓒhttps://www.lpga.com/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가 '트랜스젠더 남성'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여성 선수의 공정성 보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LPGA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 선수가 대회에서 경쟁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 과학, 스포츠 생리학, 골프 경기력 및 성 정책법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그룹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남성으로 태어났고 LPGA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자신의 테스토스테론이 일정 수준 이하임을 증명하고 '종합적인 병력'을 설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선수가 받은 재지정 수술 또는 약물 치료(해당 시술의 날짜 포함), 선수가 받은 기타 관련 치료(재지정 전 또는 후 시술을 포함해 해당 시술의 날짜, 시기, 복용량, 빈도 등) 기록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성 경기 참가 여부는 전문가 그룹의 결정에 달렸다.

LPGA 최고책임자인 몰리 마르코 사만(Mollie Marcoux Samaan)은 "새로운 정책은 광범위하고 과학에 기반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것은 엘리트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적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직 내에서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보장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 도입은 남자 골프 선수였다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헤일리 데이빗슨(Hailey Davidson)이 지난 8월 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에 응시하자, 275명의 여자 골프 선수들이 이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데이빗슨은 남자 선수로 윌밍턴대, 크리스토퍼뉴포트대 골프팀에서 뛰었고, 2015년 US오픈 남자 대회 지역 예선에도 출전했다. 이후 2021년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당시 여성 선수들은 "남성은 여성보다 골프에서 공을 치는 능력치가 약 30% 앞선다"며 "남녀의 해부학적 차이는 클럽 헤드 속도와 볼을 맞힐 때 일관성을 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모든 골프 경기를 관장하는 기관인 미국골프협회(USGA)도 최근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경쟁적 공정성 성별 정책'을 공개했다.

USGA의 CEO 마이크 완(Mike Whan)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국가 타이틀이나 팀을 위해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최신 과학 데이터를 반영하고 경쟁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는 전 세계의 선도적인 의료 전문가들과 협의한, 신중하고 철저한 과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LPGA의 새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유혹을 느낄 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크리스천포스트(CP)는 매트 윌리스(Matt Willis)의 기고글인 '유혹을 느낄 때 마음을 리셋하는 방법'(How to reset your mind when you're feeling tempted)을 4일 개제했다.

매트 윌리스는 Courage Recaned의 창립자이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유혹은 순간에 찾아올 수 있지만, 특히 성적 유혹의 경우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을 경험하고 있고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일까?

먼저, 성경의 저자들이 성적 죄의 끈끈한 유혹에 너무나 잘 익숙했다는 점에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해서 "도망치라"고 명령한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디모데전서 3:11)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디모데후서 2:22) 최소한 "도망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환경으로부터 도망치기. 기회로부터 도망치기.

종종 유혹을 경험할 때 저는 기도 걷기를 한다. 걸을 때 모든 기술 기기를 집에 두고 나가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행동은 환경(책상에 앉아 있는 것)과 기회(모든 기술 기기를 집에 두고 나가는 것) 모두에서 도망치는 역할을 한다. 기도함으로써 제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제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대로 방황하는 것을 막고 있다. 보통 저는 유혹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아내와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성적 유혹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유혹의 물결이 사그라질 때까지 도망치면서 동시에 제 마음을 진리로 적극적으로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치유의 여정을 진행하면서, 특히 행동이 충동적일 수 있는 해독 단계를 지나면,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의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것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제가 항상 혼자 집에 있을 때 유혹을 느낀다면, 아마도 이는 제 영혼이 깊은 교제를 갈망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다. 만약 불안할 때 성적 유혹을 느낀다면, 아마도 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더 깊은 신뢰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함께 불안을 처리함으로써 더 깊이 이해하도록 저를 부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절망감을 느낄 때 유혹을 느낀다면, 아마도 제가 희망을 두는 곳를 재조정해야 할 수 있다. 또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가지신 잠재력을 온전히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삶이나 일 등에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유혹이 왔을 때 사그라들 때까지 도망치길 바란다. "도망치는" 동안, 회복의 바퀴의 세 가지 축 중 하나를 추구하길 바란다. 자유를 향해 나아가면서, 유혹이 닥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실제로 갈망하는 것을 진단하는 데 점점 더 빨라지고 능숙해질 것이다. 일시적인 만족으로 감정을 마비시키기보다는,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향해 직접 달려갈 수 있다.

최승연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아노인팅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5:30 / 토 오전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배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LED 스크린으로 예배 문화 혁신하는 Trinity MS

최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LED 스크린 설치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태양빛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LED 스크린은 기존 프로젝터로는 구현할 수 없는 밝기와 화질을 제공하며, 예배 중 마치 TV 화면을 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Trinity MS(www.trinity-ms.com)는 10년 전부터 LED 분야에 진출한 회사로, 설비, 공연 기획 및 렌탈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현재 보유한 수백 대의 LED 패널을 활용해 다양한 공연, 전시, 기업 이벤트를 진행하며, LG 기업 전시회, 2023 한상대회, 미스트롯 콘서트, 하이어콜링컨퍼런스 등 대형 이벤트에서 랜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회 음향, 영상, 조명 설치에 이어 LED 스크린을 설치한 경험이 풍부한 Trinity MS는 남가주 동신교회, 홀러튼 장로교회, 세리토스 장로교회, 아름다운교회, 리노한인 장로교회 등 여러 교회에 LED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해왔다.

Trinity MS는 올해, 글로벌 LED 기업인 UNIT LED와 미국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전역에 걸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딜러 및 설치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UNIT USA와 Trinity MS는 이번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기념해, 12월과 1월 동안 중규모 교회들도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LED 패키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세일 품목은 2.5mm 해상도의 192인치와 154인치 두 가지 모델로, 1월까지 주문한 교회에는 딜러 수준의 할인 가격을 적용하여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트리니티의 판매 중형 교회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판매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LED 스크린뿐 아니라, 예배에 필요한 솔루션과 영상 소스를 제공해 더 좋은 환경에서를 드릴 수 있게 돕고 있다.

Trinity MS의 제품은 미 전역에서 어디에서나 주문할 수 있다.

중규모 교회를 위한 겨울 특별세일 (12월-1월) 한정
154인치 16:10, 2.5mm LED WALL: $9999+tax
사이트: www.trinity-ms.com
문의 : info@trinity-ms.com

김민선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송년 조찬기도회

제45차 총회 12/21(토) 오전 10시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선교자자녀 장학금 전달식 29일(주일) 5시 은혜한인교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7일(토) 갈보리선교교회에서 큰빛감리교회 담임 조헌영 목사를 강사로 2024년 12월 송년 조찬기도회를 진행했다.

조찬기도회는 OC목사회 이원석 목사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한성준 부회장의 대표기도 후 조헌영 목사가 "세월을 아끼라"(엡 5:15-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헌영 목사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시간을 쓰는 것"이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전도회 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번 기도회는 송년기도회로 연합회와 각자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하고 남은 연합회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합심기도는 연합회 이사 엄재선 장로의 마무리 기도로 마쳤다.

2부 연합회 및 교계소식 시간에는 2024년 1년을 되돌아보았다.

연합회는 12월 21일(토) 오전 10시에 제45차 정기총회를 조찬기도회 장소인 갈보리선교교회에서 갖고 내년도 회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이사회 정기총회는 그보다 앞선 16일(월) 오전 10:30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장모설렁탕 집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제5차 선교사자녀 장학금 전달식은 29일(주일) 오후 5시에 은혜한인교회 친교실에서 갖는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OC교협 회장 이취임식과 OC교계 연합 송년회를 겸해 진행된다.

연합회는 OC 인근지역에 사는 크리스천 평신도의 모임으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복음전파와 선교사명에 앞장서고 건강한 기독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월 첫 토요일에 조찬기도회를 갖고, 상반기에 교회연합성가합창제를, 하반기에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를 연다. OC인근지역 기독교 평신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ockca1@gmail.com 유튜브 채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연합회는 7일(토) 갈보리선교교회에서 2024년 12월 송년 조찬기도회를가졌다.@OC연합회

연세대학교 남가주동문회 송년모임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회장 김영숙)가 지난 12월 7일(토) 오후 4시 켈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2024년 송년 모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연세대학교 김용호 행정대외부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타 대학 동문회 임원진, 주요 초청 인사들, 그리고 20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인사를 나누며 훈훈한 연말 분위기 속에서 친목과 우정을 나누었다.

행사는 푸짐한 기념품과 경품, 그리고 장기자랑, 게임, 댄스타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송년 모임은 김영숙 회장이 이끄는 회장단의 마지막 주요 행사로, 2025년 동문회 신임 회장으로 이원모 동문(신방, 75)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며 내년을 향한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 yestorrance@gmail.com, 전화: 310-293-5054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송년 모임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사설] WEA 총회, '두 마리 토끼' 다 잃는 결과 초래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지난 2일 "불법적인 WEA 서울총회 개최 시도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세 차례에 걸쳐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교연까지 반대 대열에 가세하면서, 한국교회 내 WEA 총회 반대 여론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내년 WEA 서울총회가 불가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그 핵심이 "WEA 총회를 유치할 자격이 없는 서울의 대형교회가 WEA의 복음주의 정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WEA 고위인사들과 모의해 총회 개최를 발표했다"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

내년에 WEA 서울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선 건 예장 합동측 소속의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다. 그런데 사랑의교회나 오 목사에겐 WEA 멤버십이 없다. 정회원도 아닌 일개 교회와 개인이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를 유치한다는 건 법 상식에도 어긋난다.

내년에 WEA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사실은 알음알음 소문으로 떠돌다 지난달 15일 조직위 출범식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교계에 확인됐다. 그런데 취재에 의하면 WEA 내부 인사들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한국을 드나들며 대형교회들과 접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의사를 타진했다가 거절당하자 그 다음 찾아간 곳이 사랑의교회였던 셈이다.

사실 한기총은 지난 2009년 6월에 WEA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이듬해인 2010년에 WEA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금권선거 문제로 지난 2012년 한교연과 나누어지면서 모든 게 무산되고 말했다. 그런 배경으로 볼 때 WEA 고위인사들이 유관 기관인 한기총이나 한교연과 이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처음부터 대형교회를 타겟으로 삼은 목적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WEA 총회가 개최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내용 말고도 차고 넘친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WEA에 대한 국내 보수권의 부정적인 여론일 것이다.

WEA는 급진적인 WCC 운동을 우려한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결정한 기구다. 신학적으로 '에큐메니칼'(Ecumenical)을 지향하는 WCC에 맞서 '에반젤리칼'(Evangelical)을 지향한다. 그런데 지금 WEA가 '에반젤리칼'에 기반한 복음주의 기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WEA의 기본 정체성과 추구해 온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 현재 WEA를 쥐락펴락하는 일부 인사들의 드러난 일탈 행위 때문일 것이다.

법적으로 WEA를 대표하는 사람이 국제이사회 굿윌 샤나 의장이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경계하는 '신사도운동' 관련 의혹을 한몸에 받고 있다. 직전 사무총장인 슈마허는 신학적 배경이 모호한 데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논란으로 얼마 전 사임했다. WEA 총회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 대형교회 목회자와 여러 번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전직 사무총장도 로마 교황청에 찾아가 교황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인사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WEA 전직 사무총장 등이 여전히 WEA 실권자 행세를 하며 은밀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사랑교회 측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선의로 총회 개최를 수락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WEA 관련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랑의교회와 오 목사가 속한 예장 합동 총회에서 이미 크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교회 측이 얼마 전 WEA 의장 샤나를 강단에 세우려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도 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WEA 관련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그 실체를 알고도 이 일을 추진했다면 더 큰 문제다. 이는 한기총과 한교연 등 연합기관과 소속 교단이 우려한 대로 한국교회 보수권이 분열과 반목으로 큰 상처를 입더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설에 의하면 오 목사를 비롯한 몇몇 교계 인사들이 지난달 22일 국가조찬기도회 직후에 WEA 총회 준비를 위한 모종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다. 지난 인천 로잔대회 때처럼 국제적인 행사에 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교계에 파다한 설이 사실이라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한 윤석열 정부를 돕기는커녕 더욱 곤경에 빠트리는 일이 될 수 있다. 로잔대회가 끝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기독교계가 또다시 정부에 수십억 원의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건 국민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다. 위기에 처한 윤 정부를 생각해서라도 즉각 철회하는 게 도리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WEA의 위상에 먹칠을 한 인사들을 향해 "WEA라는 이름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하루속히 WEA를 자진해서 떠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노력으로 실추된 WEA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총회보다 급선무"라며 WEA 일부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대형교회와 몇몇 교계 인사들이 나서 WEA 총회를 개최할 시점이 아니다. 복음적인 연합기관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규약과 정신을 깨면서까지 자격이 없는 개교회와 손잡고 굳이 총회를 개최하려는 WEA 최고위층 인사들의 목적이 오로지 "돈"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들이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신학교 등의 잇단 경고를 다 무시하고 불법적인 총회 개최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교회에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기게 될 것이고, WEA를 복음적인 노선으로 원상회복할 기회마저 놓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진유철 칼럼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는 믿음이 되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창세기 41장에 보면,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 7년의 풍년과 연이어지는 7년의 흉년으로 엄청난 혼란의 상황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는 믿음으로 역전승을 이루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던 잊혀진 죄수에서 애굽 나라의 전권을 가진 2인자 국무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의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국회 탄핵안 부결 등 후폭풍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미국도 현 바이든 대통령 정권과는 많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해 연일 변화의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예외 없이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요셉같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게 하실 줄 믿으면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믿음을 쌓아가며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상황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준비한다고 하면 상황의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온갖 정보를 동원하고, 힘 가진 권력의 줄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을 동원하여 예측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쌓아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가며 상황의 확실성이 아니라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다니엘도 말년에 사자 굴에 들어가는 상황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하면서 상황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유럽으로 가게 되고,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도 거친 바람과 풍랑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왕 바로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80세의 모세, 상황으로 보면 바로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세가 움직였습니다. 인류역사를 보아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 앗수르가 한 순간에 내분으로 망하고, 천하강국 바벨론도 갑자기 망하고, 온 세상을 정복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요절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강대국 소련이 하루아침에 붕괴하여 15개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육당 최남선이나 춘원 이광수 같은 독립 운동하는 애국자들이 1940년대 들어서 변절을 하였는데, 일본이 당시에 너무 세보여서 안 망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원자폭탄 두 방으로 패전하고 항복하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의해 한 순간에도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죄수 요셉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한 나절 만에 상황이 바뀐 것같이, 주님 재림의 때 휴거는 바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풍년과 흉년에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2024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CP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과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제 55대 회장단 취임 감사예배



명예회장
진동은 목사



55대 회장
진건호 목사



수석 부회장
서사라 목사



상임이사장
모종태 장로



운영이사장
엘리야 김 목사



부회장
노정해 목사



총무
이계선 목사



회계
서진권 장로



부회계
김광진 목사



서기
최문섭 목사



부서기
김범수 목사



사무국장
이훈구 목사

일시 2024년 12월 15일 5PM

장소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멜리데 교회 (고귀남 목사 시무)

*취임식 후 식사와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전화 : (310)706-7121)

진동은 명예회장 약력

사)대한민국건국회 대표총재
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사)백석대학교총동문회 대표회장
사)우리민족교류협회 대표회장
사)대한민국통일문화진흥회 총재
사)예장백석 통합전권위원장
사)OMCA, OWCA 이사장
사)환경단체협의회 대표회장
세계기독교부흥사협의회 총재
크리스천 기자 아카데미 원장
세계전략물자정보네트워크 회장
주)한기총신문 발행인
주)CCN KOREA 대표이사

증경 회장

최영용 손순열 안수훈 임동선 이금식 오은철
차국찬 장시화 박영창 한성욱 김계용 윤철주
김의환 조천일 조문경 오은철 이기홍 김달생
안재관 김진영 황성수 심항구 정구훈 서정이
조석환 이수민 김사무엘 김도석 류당열 김경서
이정곤 한기형 김건태 이성엽 정지환 정해진 홍영환
최학량 이정남 한기형 박종대 신승훈 한종수 지용덕
민종기 번영익 진유철 박효우 최혁 김재율 한기형
정완기 조병국

임원명단

회장: 진건호 수석부회장: 서사라
부회장: 노정해 박영준 조은혜 안선신
총무: 이계선 부총무 김보겸
회계 서진권 부 회계 김광진
서기: 최문섭 부서기: 김범수
감사 김재율 사무국장 이훈구

상임이사회

모종태 김재율 오승훈 송영우 양학봉 엘리야 김
조병국 조영림 홍성관 류재규 이한옥 촬스 정

운영이사회

이사장 : 엘리야김
부이사장 : 강성수
이사 : 피터 원 이장욱 서진권 채수전 주재임 김은주
김우현 박춘혜 김송현

자문위원

이광택 유병삼 사득환

고 문

김성대 배동윤 피종진 강풍일 송일현 이용규 김수읍
고훈 이옥화 김인중

제55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은행계좌 안내

US METRO BANK
ACCOUNT # : 32008303
NAME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Southern California

▶ 26개 위원회

신학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 남북통일위원회 평신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음악위원회 여성위원회 예배위원회 출판위원회 목회위원회 원로위원회
국제위원회 사회위원회 체육위원회 유년위원회 가정사역위원회 장애우사역위원회
군선교위원회 긍휼사역위원회 교회공신력향상위원회 참된교회부흥위원회
영어실력향상위원회 자연밥상위원회

▶ 상설기구 : 남가주기독교사회봉사센터 |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김한요 칼럼

기도 계엄령



김 한 요 목사
베델교회 담임

많이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우리 목회자들은 운동 가기 위해 모였는데, 행정 목사님이 "목사님, 한국에 계엄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저의 반응은 " 정말?" "왜?"였습니다. 그만큼 의외였고, 믿을 수 없는 뉴스였습니다.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 시간에도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NBC 뉴스를 듣는데, 이렇게 앵커가 맨트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가장 충성스럽고 전략적인 동맹국 중의 하나인 남한 South Korea의 국회는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의 이유를 종북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의 부족한 생각에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과 결탁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피해 사항들을 국민들 앞에 밝혔어야 했습니다. 설득할 만한 것도 없이 계엄령을 발표하였기에 국회에서 2시간만에 계엄령 해제를 여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정부와 나라는 더욱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뽑은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이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한 일이 2시간만에 번복될 일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오, 주여~" 저절로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경제 대국 10위와 5위의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것에 교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올해만 6만 명의 탈영병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싸우는 것이 힘들어서, 탈영병으로 잡혀 감옥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해 서방에서 도와주는 군수물자로 버티곤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넘어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어느 나라가 자국민도 달아나는 나라를 지켜 주겠다고 우리의 젊은 자녀들을 보내겠습니까? 미국 메이저 방송국 첫 뉴스로 '한국의 계엄령!' 보도를 하는데, 한편 걱정도 되고, 또 한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꼼짝 말고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기도 계엄령을 선포합시다.

강태광의 신앙 명시 산책 월드쉐어 USA

마음 구유 – 이용도 목사

마음 구유/ 이용도 목사

베들레헴
작고 추한 말구유를
허물치 않으시고
거기 나신 예수님이여!

나의 작고 추한
마음 구유에
탄생하시고
좌정하시옵소서

이시는 한국 초기 기독교 신앙 지도자 이용도 목사의 시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자신이 시인인줄도 모르고 많은 시들을 남겼습니다.

많은 성탄절 시들을 읽었지만, 이용도 목사님의 〈마음 구유〉만큼 명쾌하게 성탄절의 기쁨과 소원을 표현한 시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마음 구유〉를 성탄절의 시 중에 가장 사랑합니다. 이시는 1927년 12월 24일(토) 이용도 목사님이 쓰신 그의 일기에서 발견한 시입니다.

이용도 목사는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왜곡되는 세태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 역사를 정리하며 "작고 추한 말구유"를 언급합니다. 1연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는 "허물치 않으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의 누추함과 옹색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표현하는 시어가 "허물치 않으시고"입니다. 시인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허물치 않으시고"에 담았습니다.

2연에서 시인 이용도 목사님은 "나의 작고 추한/ 마음 구유에/ 탄생/ 좌정하시옵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말구유를 탓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작고 추한 자신의 마음 구유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좌정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유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음 구유에 모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현대 사회 일각에서는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을 막는 세력도 있습니다. 성탄절 자체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 그리고 구원 이런 단어와 개념을 없애려는 무서운 문화가 시대를 지배합니다.

나아가 성탄절을 이용해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구유에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서 2000년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용하는 상업적 성탄절이 난무합니다. 성탄절의 들뜬 분위기를 타락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마음 구유〉는 더욱 큰 울림이 있습니다. 오래전 베들레헴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용도 목사는 1901년 4월 6일 황해도 금천군 서천면 시변리 178번지에서 이덕흥씨과 양마리아 사이에서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이용도는 어머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고 13세부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용도는 시변리 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15년 경기도 개성의 한영서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남감리회의 미션스쿨이요 개천절을 개교기념일로 하는 민족학교였습니다. 이용도는 청년 시절 1919년부터는 독립운동으로 4차례 체포되고 갇혔습니다. 이용도 목사는 1924년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1928년 1월 졸업한 뒤 강원도 통천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1928년 11월부터 강원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용도 목사는 뜨거운 인기와 급진적인 신비주의적 성향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그의 사상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신학과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장로교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932년 10월에 장로교 황해노회가 그에게 금족령을 내렸고, 1932년 평양노회가 금족령을 내렸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지내던 그는 1933년 10월 2일 33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용도 목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습니다. 1997년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용도 목사를 복권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도 2015년 이 목사의 사면을 검토했습니다. 최근 이용도 목사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와 편지를 묶은 '이용도 목사 전집 1, 2권'(주의것)이 출간되었습니다.



강태광 목사(WorldShare USA 대표, 시인)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끄는 공동체
GLOBAL PARTNERS
GP 선교회(USA)
대표 이취임 감사예배

저희 GP 선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끄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현재 42개국의 선교지에 42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맞아 GP 선교회 미국본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대표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GP 선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소망하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이임대표 : 배선호 선교사
■ 신임대표 : 백운영 선교사
■ 일시 : 2025년 1월 2일(목) 오후 7시
■ 장소 : 디사이플교회 본당 (17502 Daimler Street Irvine CA 92614)

*본 광고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Global Partners USA, INC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714.774.9191 Fax:714.774.9192
E-Mail : admin@gpusa.org Homepage : www.gpusa.org

교회 관리인 구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협력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 사례비와 2Bed 사택 제공
■ 연락처 : 213-383-3261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LA동부장로교회
Eastern Presbyterian Church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총회장 : 서사라 목사
부총회장 : 박영준 목사
총무 : 김영일 목사
부총무 : 김보겸 목사, 고무디 목사
서기 : 안선신 목사
부서기 : 이영근 목사
회록서기 : 조은혜 목사
회록부서기 : 김광진 목사
회계 : 안정희 목사
부회계 : 박춘혜 권사

감사 : 엘리야 김 목사, 진건호 목사

이사회 의장 : 김인철 목사
사무총장 : 엘리야 김 목사

교단가입문의 : (213) 272-6031


총회장 서사라 목사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라

라구나힐스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찬양예배 수요 오전 11:00
중보기도회 목요 오전 9:30
샬롬 Q-cord 금요 오전 10:00
하늘찬양대 주일 오전 10:00, 오후 1:30


림학춘 담임목사

성탄예배 : 12월 25일 오전 11:00 세례와 성찬식
새해새벽기도회 : 2025년 1월 1일~1월 4일 오전 6:00

주소 및 전화

24442 Moulton Pkw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http://www.lagunachurch.com

연합선교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10:45
EM YOUTH 예배 오전 10:45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5:30
주중기도회 수, 금요일 오후 8:00
목장모임 마지막 주일 오후 12:30
제자 양육 및 훈련 화,수,목 오후 2:00/오후 7:00


담임 김종호 목사

주소 및 전화

11135 & 11145 Morrison St. North Hollywood, CA 91601
T.(213)281-1196 pastorjonghokim@gmail.com

남가주 주안에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상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465 W. Orangethop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22-6388, (714)452-1555 www.inchristusa.org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을 위한 가이드

성경 본문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도 될까?



신학자들과 성경 읽기

고든 피, 제임스 휴스턴 외 | 김진우 역 | 터치북스 | 268쪽 | 20,000원

우리 주변에는 성경 읽기, 성경 해석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있다. 교회, 신학교, 성경학교를 통해 다양한 독서와 해석 방법이 제시되었다.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리젠트 칼리지의 교수진이 성경 읽기와 해석 지침을 명쾌하게 제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영성 작가 유진 피터슨의 서문, 성경학자 고든 피와 엘머 딕의 성경 해석 방법론, 제임스 패커의 신학과 성경 읽기에 관한 조직신학적 지침, 크레이그 게이의 사회학과 성경 해석학에 관한 통찰, 철학자이자 환경 윤리학자 로렌 윌킨슨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응전, 영성신학자 제임스 휴스턴의 경건을 위한 성경 읽기 가이드. 탄탄한 신학과 뜨거운 신앙에 토대를 두고 집필된 이상의 신학 에세이는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유진 피터슨은 "성경을 읽되 제대로 읽으라"고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대로'의 의미를 밝혔다.

"성경을 읽되, 성경을 읽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또는 감정의 고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한다. 그 기술들은 성경 말씀뿐 아니라 성경의 정신과 마음을 지향하게 해주는 기술, 예리한 이성과 경건한 마음을 통합하는 기술, 삶의 실천과 일치되지 않는 성경 이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기술, 동시에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석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기술을 포함한다(11쪽)".

그리고 피터슨은 〈신학자들과 성경 읽기〉를 통해 독자가 '최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한다. 이 책은 리젠트 칼리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교수들 중 고든 피(신약학), 엘머 딕(성서학), 제임스 패커(신학과 성경), 크레이그 게이(사회학), 로렌 윌킨슨(철학), 제임스 휴스턴(영성신학)의 글을 담고 있다.

서문을 쓴 유진 피터슨을 제외하고 총 여섯 명의 학자가 쓴 이 책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해석을 위한 맥락으로서의 역사(고든 피) ②해석을 위한 맥락으로서의 정경(엘머 딕) ③신학과 성경 읽기(제임스 패커) ④지식사회학과 의심의 해석학(크레이그 게이) ⑤해석학과 포스트모더니즘(로렌 윌킨슨) ⑥영성과 성경 읽기(제임스 휴스턴).

책의 원제는 'The Act of Bible Reading(성경 읽기 행위)'이다. 번역서에 나온 부제는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을 위한 가이드'이지만, 원서엔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Biblical Interpretation', 즉 '성경 해석에 관한 다학문적 접근'이라고 쓰여 있다.

개인적으로는 원서의 제목과 부제가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1-3장까지는 성경 해석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지만, 4-6장의 내용은 확실히 해석의 다양성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책의 전반부를 통해 '성경 본문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면 원문이 담고 있는 원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반부를 읽을 땐 '성경 본문을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읽어나가면, 결국 우리는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고든 피는 1장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본문을 개별화해서, 그 원래 배경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놓치게 된다(27쪽)"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5장에서 로렌 윌킨슨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창출한 다양한 해석 방식 변화에 맞춰 본문을 '개별화'하면, 나름의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그가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해방신학'에 관한 예를 들 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을 위한 가이드"가 맞는지 강한 의문이 들 정도였다.

본문의 전통적 해석을 일단 의심하고, 기존 접근 방식을 해체하려는 태도,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집중하기보다 독자가 처한 상황과 사회학적 구조, 문화와 배경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집중하는 성경 해석은 위험해 보인다.

마지막 휴스턴이 제시하는 독자 반응 비평의 역사, 사막 교부들의 성경 사용 방법부터 렉시오 디비나와 중세 수도원 독자, 종교개혁의 해석, 그리고 계속될 영성 가득한 성경 읽기 방식까지. 어떤 면에서 독자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글 읽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경이로인 지혜와 진리를 누구나 듣기 원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주기보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게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해가는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거대한 과제를 가져다준 느낌도 든다.

물론 성서해석학의 다양한 관점과 전개된 방식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고백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책이 논하는 그 어떤 학문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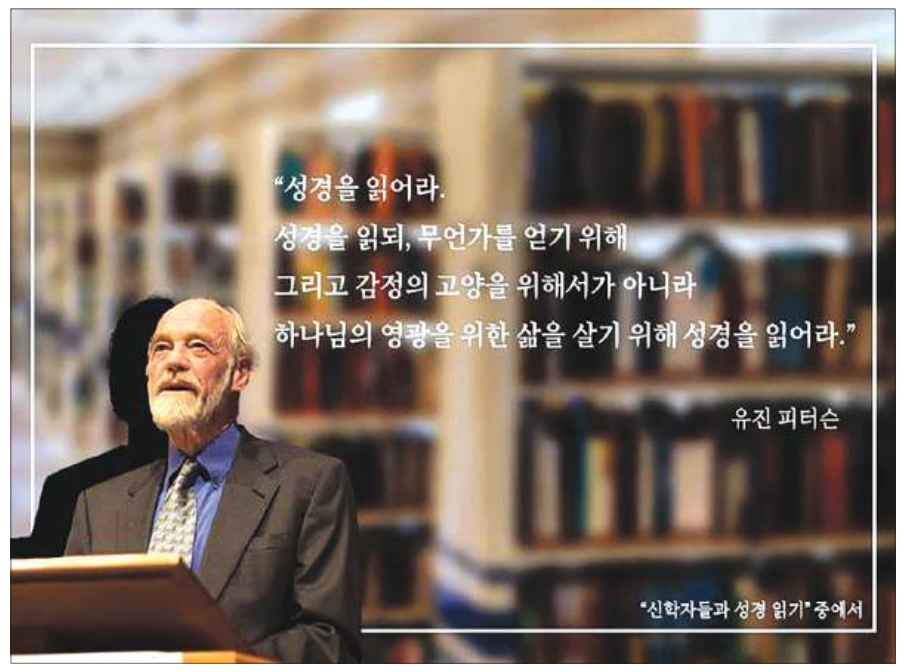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시 19:9-10)"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모든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식과 지혜와 영성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리고 〈신학자들과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떤 이들은 깊이 있는 성경 해석 방식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읽기를 통해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파악해 기쁨으로 순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피터슨의 말처럼 계속해서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읽어나가기를 권면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힘과 지혜는 우리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이끄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관점은 이렇게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변해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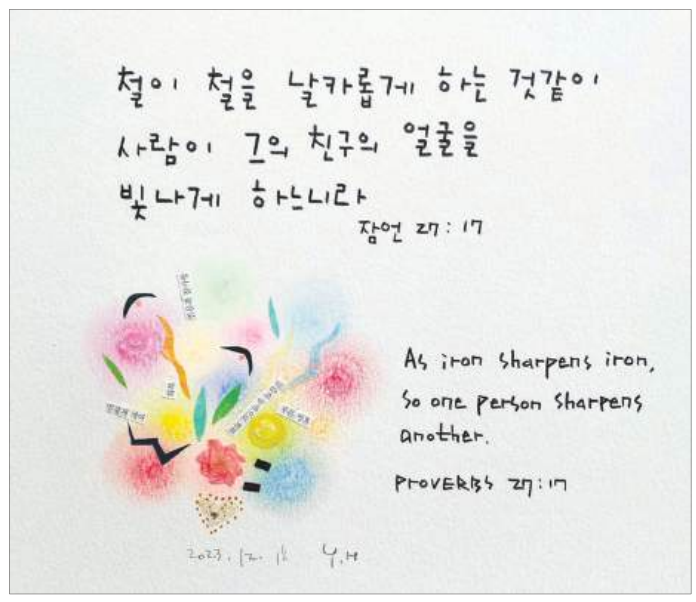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성경 읽기에 깊이를 더하는 신학은 바울이 감탄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를 외치게 하는, 그분의 의도하신 그리고 조명하시는 뜻이고,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심지어 방해가 되는) 신학은 인간이 만든 철학과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책 속 톰 라이트 교수의 말.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미주 기독일보 후원

한국 혜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서울동부지역 으뜸병원, 혜민병원

혜민병원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큰 행복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검진내용 *산부인과 질 초음파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진료합니다.

- 뇌 MRI / 수면 대장내시경 — 중 선택
- 수면 위내시경
- CT 촬영 (뇌, 폐 선택)
- 종양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갑상선 검사. T3, T4, TSH
  (갑상선 항진, 저하)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골밀도
- 간기능, 콜레스테롤, 심장질환 등
  혈액검사 및 기본검사
- 산부인과 질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검진비용

~~$1,250~~ **$41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10불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양도 양수가능)



종합건진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혜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문의전화 T.(213)341-5123